

자유주의 연구회 2018년 10월 월례 포럼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 의 쟁점들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철학과
교수 박정순
2018년 10월 4일 목요일 17:00-19:00
자유기업원 회의실

목차

- I. 서론: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의 등장과 그 배경.
- II.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비판과 자유주의의 대응.
- III. 자유주의의 공동체주의 역공: 낭만적 노스탤지어의 딜레마.
- IV. 결론: 논쟁의 자유주의적 종식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미래.

2

서론: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의 등장과 그 배경

- 1980년부터 30년간 영미(캐나다 포함) 철학계에서 시발, 유럽 철학계로 퍼져나간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사이의 논쟁. Cf. 아시아적 가치 논쟁.
- 의무론적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대 미덕 추구적인 가치통합적 목적론인 공동체주의의 대립을 기초로 출발. 그 이후 규범 철학의 방법론적 기초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 가치들 사이의 논쟁으로 발전.
- 문명의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의 충돌. 세계 철학 논쟁사에서 하나의 금자탑. 이제 상시적 철학 논쟁 주제.

3

논쟁의 발단과 전개 (1)

- 지금까지 서구 사회에서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옴.
- 그러한 사회의 도덕적, 실천적 부적합성과 이론적 한계에 대한 비판을 공동체주의가 먼저 전개함. 자유주의가 이에 대응함으로써 시작. 그 이후는 혼전 계속되어 옴.
- 그 논쟁은 종식되었는가? 그래서 양자는 상호 수렴했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확산일로에 있는가?

4

논쟁의 발단과 전개 (2)

- 이 논쟁은 구체적으로 존 롤즈의 <정의론> (1971) 이후에 정립된 '새로운 유형의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으로 발단.
- 롤즈의 정의론은 당시까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공리주의를 비판. 사회계약론의 전통 부활시켜 자유주의를 재구성한 분배적 정의론.
- 선에 대한 정당성, 공동선에 대한 정의와 자유와 권리, 목적에 대한 자아를 우선시하는 권리준거적인 의무론적 자유주의, 개인 간의 합리적 자율적인 계약적 합의에 기초하는 합리적 선택론.

5

자유주의 진영

- 존 롤즈(John Rawls): 공평/평등 자유주의, 권리준거적 칸트적인 의무론적 자유주의.
-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자유시장주의. 개인 능력, 재산권, 자유시장, 최소국가론.
-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자원 평등주의와 운 평등주의, 권리기초론 중시. 자유보다는 평등의 우선성 역설.
- 그 외 고티에, 스캔런, 거워스, 액커만, 라즈, 킴리카, 라모어, 마세도, 겔스톤,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

6

공동체주의 진영

- 알래스데어 맥킨타이어 (Alasdair MacIntyre): 미덕 추구 완전주의/가치통합/목적론적 공동체주의.
-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공화주의적인 총체론적 개인주의적 공동체주의 주장.
-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 다원주의적 평등, 복합평등 역설, 공동체주의 내재적 비판이론.
-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미덕 추구 완전주의/가치통합/목적론적 공동선의 정치. 도덕적 응분.
- 그 외 웅거, 바버, 에치오니, 벨, 벨라 등.

7

두 진영의 철학사적 연계

- 자유주의 진영: 로크 (노직, 고티에), 칸트 (롤즈), 밀 (하사니 등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자들), 홉스 (고티에, 제임스 M. 뷰캐넌, 카브카 등 홉스주의자들), 루소 (초기 롤즈).
- 공동체주의 진영: 아리스토텔레스(대부분), 아퀴나스 (후기 맥킨타이어), 헤겔 (테일러, 샌델), 루소-마키아벨리 (공화주의적 입장; 미국-초기 샌델, 고대-그리스 테일러), 파스칼,-마르크스-그람시 (월저). 훔볼트 (테일러).

8

자유주의 진영의 내부적 논쟁 (1)

- 롤즈의 정의론 대 공리주의 (하사니 등); 원초적 입장에서 양 이론 도출 시비. 하사니는 롤즈의 정의 원칙 비판하고 평균 공리주의 옹호.
- 노직의 공리주의 비판: Utility Monster. 공리주의는 가장 많은 효용을 결과하는 분배 옹호. 그렇다면 효용 괴물(utility monster) 경우 자원 소비 독점.
- 롤즈의 정의론 대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롤즈의 정형적 분배적 원리 비판, 최소국가.
- 노직 대 드워킨; 자원/운 평등주의 논쟁, 자유와 평등 우선성 논쟁.

9

자유주의 진영의 내부적 논쟁 (2)

- 롤즈와 고티에: 둘 다 합리적 계약론 주장. 도덕의 합리적 정당화 가능성 시비. 최소 극대화 규칙 대 게임이론적 협상.
- 롤즈의 중립적 반환전주의 대 비중립적 완전주의: 겔스톤, 라즈, 마세도. 자유주의는 일련의 독특한 자유주의적 가치관 보유.
- 롤즈 대 하버마스: 도구적 합리성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비판 (1995).

10

공동체주의 진영의 내부적 논쟁

- 미덕추구적 완전주의, 가치통합적 목적론적 공동체주의; 맥킨타이어, 샌델; 개인주의와 다원주의 반대.
- 개인주의와 다원주의 수용, 목적론: 테일러.
- 자유주의가 심화된 특수적이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평등 추구, 복합평등: 월저.
- 공동체에 대한 완전주의적 목적론적 가치통합 반대: 비목적론적 참여론자: 월저, 바버.
- 초기 마르크스와 기독교의 융합: 웅거. Cf. 후기 맥킨타이어 (아리스토텔레스—>아퀴나스).

11

30/40년 논쟁의 전망 (대표 저서들의 관점에서)

- 자유주의자 존 롤즈(John Rawls), from *A Theory of Justice* (1971). to *Justice As Fairness: Restatement* (2001)
- 공동체주의자 알래스데어 맥킨타이어 (Alasdair MacIntyre), from *After Virtue* (1981), to 공동체주의자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s to Do?* (2009). 우리나라에서 번역본(2010) 150만부 판매. 우리 독자들도 논쟁에 간접 참여.

12

대표 사상가들의 생사

- 자유주의 진영의 3 거두는 모두 사망.
- 존 롤즈 (1921-2002), 로버트 노직 (1938-2002), 로널드 드워킨 (1931-2013). 이제 데이비드 고티에 (1932-)와 팀 스캐런 (1940-) 대표.
- 공동체주의 진영의 4 거두는 모두 생존.
- 알래스데어 맥킨타이어 (1929-), 찰스 테일러 (1931-), 마이클 윌저 (1935-), 마이클 샌델 (1953-).
- 원래 당사자들 사이의 논쟁은 증식.

13

자유주의의 새로운 유형과 그 방법론적 기초 (1)

- (1) 자유주의는 도덕적 규범을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 혹은 개인들 간의 계약적 합의와 협상에 근거. 도덕적 규범은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정당화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함.
- (2) 자유주의는 권리근거적(right-based) 혹은 의무론적(deontological) 윤리체계 견지. 그것은 현대사회에서의 다원적인 가치관들 사이에서 중립성을 통해 도덕규범을 산출하기 위한 것임. 선에 대한 정당성의 우선성, 공동선에 대한 정의와 자유와 권리의 우선성 주장.

14

자유주의의 새로운 유형과 그 방법론적 기초 (2)

- (3) 자유주의는 사적 영역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다양한 실질적 가치관 추구 인정. 공공도덕의 차원에서는 도구적 합리성을 근거로 사회적 규범을 산출하려고 시도. 특정한 도덕적 가치나 덕목의 국가나 공동체의 권장 거부됨.
- (4) 도덕적 주체로서 개인은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가치관을 선택하고 변경하고 수정함. 그래서 선택되는 가치관과 목적에 선행.

15

자유주의의 새로운 유형과 그 방법론적 기초 (3)

- (5) 정치적 공동체의 기본적 목적은 개인들이 그들의 협동적 이득을 얻는 한에서 참여하는 기본적인 것이므로 정치적 참여가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다양한 가치와 목적 중의 하나일 뿐임.

16

공동체주의의 기본적 유형과 방법론적 기초 (1)

- (1) 공동체주의는 도덕적 규범이 역사적 공동체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전통 속에 내재함. 따라서 도덕적 규범은 공동체의 다층적인 삶의 지평을 고려하는 방법론적 총체주의에 의거.
- (2) 공동체주의는 덕 혹은 개인의 품성에 근거하는 목적론적(teleological) 윤리체계를 취함. 그러한 목적론적 가치관을 통해서 공동체적 연대성과 통합성이 제공됨. 따라서 정당성은 선과 분리될 수 없고, 선을 바탕으로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함.

17

공동체주의의 기본적 유형과 방법론적 기초 (2)

- (3) 공동체주의는 합리성이 도구적 합리성이 아니라 본래적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가치/목적 추구적 합리성으로 보고 개인적 도덕과 공적 도덕의 통합을 시도함. 특정한 가치나 덕목의 국가와 공동체의 권장이 요구됨.
- (4) 도덕적 주체로서의 개인은 공동체적 삶의 구체적 가치를 수용하여 자아가 형성됨. 그래서 공동체적 연대성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선을 고려 가능.

18

공동체주의의 기본적 유형과 방법론적 기초 (3)

- (5) 정치적 공동체의 목적은 개인들이 그 속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 속에서 미덕을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존재.
- Cf. Aristotelian *Zoon Politikon* (Political Animal): 정치적 동물. 유기체적 공동체. 전체가 부분에 앞섬. 공동체 > 가족 > 개인.
-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Neo-Aristotelian) 공동체주의, 덕의 윤리 부활 (덕 윤리 문제는 추후 논제).
- 자유주의적 법치인가? 공동체주의적 인치/덕치인가?

19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비판 (1)

-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었지만 8가지 관점에서 요약 정리 가능.
- 첫째, 자유주의는 가족 혹은 지역 공동체를 경시 또는 무시함으로써 인간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중요하고도 대체할 수 없는 구성요소인 공동체를 손상.
- 둘째, 자유주의는 정치적 결합을 단순히 도구적인 가치만을 가진 것으로 과소 평가함으로써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인간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갖는 중요성을 망각.

20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비판 (2)

- 셋째,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적 계약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닌 가족에 대한 의무, 공동체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책무와 헌신 등 개인적 사회적 덕목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거나 그러한 설명과 양립 불가.
- 넷째, 자유주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는 개인적 자아가 선택의 대상이 아닌 공동체적 삶과 가치를 수용하며 그러한 방식으로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불완전한 개념 보유.

21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비판 (3)

- 다섯째, 자유주의는 정의(正義)가 공동체의 보다 고차적인 덕목들이 붕괴된 상황에서만 필요하거나 또는 기껏해야 교정적인 덕목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 따라서 정의를 사회제도의 제일 덕목이라고 잘못 간주.
- 여섯째, 자유주의는 다양한 개인의 가치관들에 대해서는 반완전주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의의 원칙을 통한 절차주의적인 통괄만이 도덕과 국가의 우선적 임무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권리 중심적인 의무론적 도덕체계와 국가관을 보유.

22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비판 (4)

- 일곱째, 자유주의는 개인적 권리의 보장과 정의원칙의 실현을 모든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당화 기준으로 제시함. 그래서 한 사회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적이고 내재적인 역사적 상황을 무시.
- 여덟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문화는 공동체적 귀속의 상실과 가치의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삶의 근본과 지표, 사회적 통합성을 상실하여 고립적이고 파편적 개인 양산.

23

II.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비판과 자유주의의 대응

-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비판 8가지를 5가지 관점으로 재정리하여 고찰.
- A. 자유주의적 자아관
- B.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개념
- C. 자유주의의 중립성과 반완전주의
- D.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 E. 자유주의와 현대 사회의 문제

24

A. 자유주의적 자아관 (1)

- 공동체주의자들, 특히 맥킨타이어, 샌델, 그리고 테일러는 자유주의적 자아관의 박약성과 방법론적 오류를 지적. 롤즈에 의해서 상정된 자유주의적 자아는 목적에 선행하고 또 구분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
- MacIntyre, <After Virtue>(1981).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1982). Taylor, <Source of the Self>(1989).

25

A. 자유주의적 자아관 (2)

- 이러한 자유주의적 자아관은 자아의 정체성이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과 상황 속에서 목적에 의해서 구성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추상적이고 유리된 자아이거나 무연고적인 자아이며, 또한 고립적인 원자론적 자아로 비판.
- 이러한 자유주의적 자아관은 자아가 결코 목적과 유리될 수 없기 때문에 박약하고 공허할 뿐만 아니라,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구성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존재론적 오류에 근거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자아관으로 비판됨.

26

A. 자유주의적 자아관 (3)

- 첫째로,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 자아관의 적용 범위를 오해한다고 반박. 롤즈와 라모어의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1993)에 입각한 주장에 따르면, 도덕적 주체가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변경하고 평가하는 고차적인 관심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가치관에 대한 합의가 없는 다원적이고 서구 사회의 전통과 정치적 문화에 내재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라는 직관적 신념을 대변한 것이라고 반박.

27

A. 자유주의적 자아관 (4)

-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가치관과 사회적 위치가 무지의 장막으로 가려진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나타난 자유로운 선택 주체라는 개념은 결코 인간의 본질이 그의 최종적인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귀속, 그리고 개인적 성격을 포함한 우연적 속성들에 우선하거나 독립적이라는 주장하는 어떤 형이상학적 자아 개념에 의거하지 않음.
- 롤즈는 정치적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들이 구성적 목적과 포괄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

28

A. 자유주의적 자아관 (5)

- 둘째로, 김리카와 마세도는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은 자유주의적 자아관의 자율성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고 대응. 자유주의자들이 우리가 모든 목적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어떤 특정한 목적과 우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언제나 비판적 숙고와 선택을 할 수 있음.

29

A. 자유주의적 자아관 (6)

- 이러한 숙고와 선택은 언제나 선택될 수 없는 구성적 목적의 배경 속에서 전개되며, 우리는 이러한 한도 내에서 우리의 자아와 사회를 점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황적 자율성'임.
- 맥킨타이어, 테일러, 샌델 모두는 자아의 정체성과 공동체적인 구성적 결부를 논하면서 '부분적'으로만 그러하다고 인정.

30

B.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개념 (1)

- 첫째,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순전히 개인주의적이고 도구적인 관계로만 파악한다고 비판. 즉 자유주의가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공동체적 책무와 연대성, 그리고 가치보다 우선시키는 것은 공동선의 정치를 손상하고, 공동체를 부차적이고 도구적으로만 파악한다고 비판.

31

B.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개념 (2)

- 둘째,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는 도구적 가치만을 중시함으로써 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사회와 공동체와 전통의 일원이 되는 구성원 자격이라는 것과 또한 그것이 본질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망각한다. (특히 맥킨타이어, 월저, 샌델의 경우).

32

B.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개념 (3)

- 공동체주의자들의 첫 번째 비판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두 가지 대응 시도.
- 첫째, 롤즈는 <정의론>에서 원용했던 합리적 선택이론적 정당화를 포기. 이제 롤즈는 정의론이 순전히 합리적이고 상호무관심한 개인들의 계약적 합리성(the rational)을 통해서만 정당화되지 않음.

33

B.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개념 (4)

- 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당사자들이 사회를 공정한 사회적 협동체로 간주하고 그 제약 조건을 반영하는 합당성(the reasonable)이 중요.
- 롤즈는 사회정의에 의해서 규제되는 자유주의 사회는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서 시민성과 관용과 같은 공정한 사회적 덕목, 선의 추구를 제약하는 공정성과 같은 사회적 덕목과 가치를 요구한다고 밝힘.

34

B.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개념 (5)

- 둘째, 앨런 뷰캐넌을 위시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적 권리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적 방식보다 오히려 공동체와 공동체의 가치를 더 잘 보존하고 증진한다고 주장.
- 즉 자유주의가 종교, 사상, 언론,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공동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에 귀속시키는 이유는 공동체의 평화적 변천과 자의적인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소수자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35

B.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개념 (6)

-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라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
- 김리카를 위시한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답변. 즉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의 반사회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가치와 의무의 원천은 개인과 그 개인의 선택과 선호라는 관점에서의 도덕적 개인주의임. 이러한 개인주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의거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주장과 최소한 양립 가능.

36

C. 자유주의의 중립성과 반완전주의 (1)

- 자유주의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은 '선에 대한 정당성의 우선성', '공동선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 '목적에 대한 자아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의무론적 자유주의를 취함. 이러한 의무론적 자유주의는 한 사회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은 어떤 특정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한 중립성의 요구와 이러한 중립성의 요구는 어떤 특정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탁월성(arete)을 주장하는 완전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음.

37

C. 자유주의의 중립성과 반완전주의 (2)

- 이러한 반완전주의적 중립성은 근대 민주사회를 서로 상충하는 양립 불가능한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하는 다원주의적 사회라고 보는 자유주의의 기본적 정치사회학에 근거. 이러한 반완전주의적 중립성은 자유주의 도덕 및 정치철학적 체계와 국가관을 동시에 규정.

38

C. 자유주의의 중립성과 반완전주의 (3)

-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러한 반완전주의적 중립성은 위선적이며 모순적이라고 주장.
-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제도와 규범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듯한 불편부당성을 과장함. 결국 자유주의적 중립성 자체는 결국 자유주의적인 삶을 옹호하게 되는 명백한 모순을 피할 수 없음.

39

C. 자유주의의 중립성과 반완전주의 (4)

-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도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협동이라는 실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순수한 절차적 중립성을 주장할 수 없음 인정.
-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가 가치관들 사이의 공통적 기반과 중립성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어떤 형태의 도덕적 덕목들, 즉 시민성, 관용, 사회적 협동, 합당성, 공정성과 같은 덕목들을 권장함.

40

C. 자유주의의 중립성과 반완전주의 (5)

- 롤즈는 이러한 덕목들을 정치적 정의관 속에 유입시키는 것이 포괄적 교의 위주의 완전주의 국가에 이르지 않음을 주장.
- 그는 가치통합적이고 완전주의적인 공동체주의의 포괄적인 가치관은 결코 다원주의적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 이러한 포괄적 가치관의 사회적 유지는 오직 국가 권력의 억압적 사용을 통하는 뿐임.

41

C. 자유주의의 중립성과 반완전주의 (6)

- 롤즈의 이러한 중립성과 반완전주의는 그의 정치적 정의관의 정당화 방법론과 연관.
- 그는 정치적 정의관이 근대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합당한 다양한 포괄적 가치관과 삶의 양식들' 사이의 중첩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되므로 정당화됨을 주장.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는 국가완전주의로 나아가게 될 경우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훼손.

42

D.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1)

-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정의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혹은 범문화적으로 적용됨.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특정한 전통과 문화에서 추상된 보편적 관점을 통해서 한 사회의 도덕 규범과 사회제도 평가 주장. 롤즈가 <정의론>에서 공정한 원초적 입장을 통해서 보편적 정의 원칙을 도출하려는 것이 그 단적인 예임.

43

D.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2)

- 공동체주의자들은 그러한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과 추상적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판.
- 월저는 특히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 주목하고, 사회적 가치는 특정한 사회에서 그러한 사회적 가치가 가지는 공유된 사회적 의미에 가장 충실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 따라서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회적 가치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회적 가치들의 각 영역에 타당한 다원적인 원칙들로 구성됨을 주장.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1983).

44

D.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3)

- 맥킨타이어도 모든 도덕적 정치적 논의는 특정한 공동체적 전통 속에서 사회적 관행과 개인의 설화적 질서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므로 보편적인 도덕적 관점이나 원칙이 없음을 주장.
- 맥킨타이어는 의무론적 윤리체계에서 도덕 주체는 "모든 사회적 특수성에서 완전히 유리된 순전히 보편적이고도 합리적인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도덕 주체의 권리나 계약이라는 것도 심지어 '일각수나 마녀'처럼 허구에 불과 주장. <After Virtue>(1981).

45

D.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4)

- 주목해야 할 논의는 롤즈의 <정의론>이 <정치적 자유주의> 이전에 충분히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강한 자유주의론'임.
- '강한 자유주의론'은 자유주의가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앞세우지 않지만, 개인들의 '마음의 습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대사회가 필요한 만큼의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는 주장.

46

D.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5)

- 첫째, 강한 자유주의론에 의하면, 롤즈의 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해치고 앎고 최소수혜자의 복지를 최대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구현함.
- 또한 롤즈가 자유와 평등과 함께 '박애'를 중시하며, 모든 개인들의 자질을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한 것과 질서정연한 자유주의 사회를 '사회적 연합들의 연합'으로 간주함에 주목.

47

D.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6)

- 둘째, 강한 자유주의론에 의하면, 공정한 기회균등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자유주의가 강조하지만 또한 역으로 복지수혜자 집단이 수동적 비노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주의는 개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능동적인 인간이라는 노동과 직업 윤리를 창출하여 옴.

48

D.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7)

- 셋째, 강한 자유주의론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단순히 개인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정치적 강령임.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세계 체제와 민족자결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국민국가를 위한 맹목적인 국수주의(chauvinism)를 조장. 이러한 국수주의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강력히 요구. 특히 냉전 시대에서는 더욱 두드러짐.
- 그러나 이것은 자유주의가 때로는 반자유주의적으로 지탱되었다는 모순을 노정. Cf. 2001. 9/11 이후 국가적 안전이 제1 가치로 부상.

49

E. 자유주의와 현대 사회의 문제 (1)

-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그 이론적인 편협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옴과 아울러,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
-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문화는 가치의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삶의 근본과 그 지표,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비판.

50

E. 자유주의와 현대 사회의 문제 (2)

- 따라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사회는 고립적이고 파편적이고 고독한 개인, 방종과 이기심의 만연, 초개인주의적 환상과 도피주의와 나르시시즘, 이혼율의 증가와 가족의 해체, 정치적 무관심과 수동성, 상업주의적이고 감각주의적 탐닉의 만연, 폭력적인 대중문화, 마약의 범람, 범죄율의 증가 등 다양한 도덕적 실패를 노정.

51

E. 자유주의와 현대 사회의 문제 (3)

- 맥킨타이어는 현대 사회의 도덕적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진단. 즉 현대사회는 통약 불가능한 전제들과 상이한 대안적 신념 체계들로 말미암아 도덕적 불일치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해결도 가능하지 않는 심각한 상대주의적 무질서, 아노미적 상황.
- 따라서 현대의 자유주의적 도덕철학이 물 개인적이고도 객관적인 근거를 추구하지만 그것은 결국 정의론(情意論)으로 귀착.

52

E. 자유주의와 현대 사회의 문제 (4)

- 이러한 정의론으로 말미암아 개인적 만족에 몰두하는 탐미주의자들, 효율적인 관료적 통제를 추구하는 전문 경영인들, 그리고 타인의 삶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조작하는 임상적 치료사들이 대표적 인물들로 등장.
- 현대 사회와 문화는 그러한 개인적 자의성과 공공적 조작성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통합이 해체되고 조작성과 비조작성에 대한 윤리적 구분이 상실되는 도덕적 위기.

53

E. 자유주의와 현대 사회의 문제 (5)

- 테일러는 근대 개인주의는 본래성 혹은 진정성(authenticity)이라는 이상 소유, 그것은 내면적 자아와의 도덕적 대면과 자아실현, 그리고 주체적 결정의 자유를 의미.
- 그러나 근대 개인주의 문화는 자아중심적이고 그 원자론적 형태로 말미암아 그러한 본래성의 이상을 살리지 못함. 따라서 원자론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개인주의는 삶의 의미 지평의 상실과 도덕적 차원의 질적인 하락을 불러옴.
- 오직 공동체적 연대성의 복원을 통해서만 그러한 '근대성의 병폐' 치유 가능.

54

E. 자유주의와 현대 사회의 문제 (6)

- 현대사회 문제와 관련된 자유주의자들의 세 가지 반응.
- 첫째, 자유주의자들은 일단 근대성의 모든 문제를 자유주의 혼자 짊어지는 것에 못마땅해 하고 분노.
- 즉 현대 사회의 문제는 자본주의, 대중 사회와 대중 매체의 조작적 문화, 과학 기술, 세속화, 종교적 광신주의, 지역/공동체 이기주의(Nimby, Pimfy), 민족적 갈등, 낭만주의적 미학(히피, 출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원천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를 유독 지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함.

55

E. 자유주의와 현대 사회의 문제 (7)

- 둘째,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이 한탄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다양한 문화적 현상은 병폐는 아니고, 근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실제적 귀결.
- 롤즈는 서로 상충하고 불가통약적인 가치관들이 편재한다는 '다원주의적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 관용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자유주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대사회의 '영속적 특색'.
- 파국이 아니라 자유민주사회의 자연적 결과. 따라서 다원주의적 사실은 맥킨타이어의 주장처럼 도덕적 위기와 무질서 아님.

56

E. 자유주의와 현대 사회의 문제 (8)

- 셋째,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의 정책 대안과 현실적 치유책이 명백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그러한 비판들 무시.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약과 공동체적 가치를 증진하는 여러 정부 정책 추진. 샌델은 공동체에 대한 희생 강조, 군 복무는 신성한 의무.
-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유를 축소하고, 개인의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간섭을 가중시켜 국가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비판.

57

III. 자유주의의 공동체주의 역공: 낭만적 노스탤지어의 딜레마

- A. 공동체 개념의 모호성과 공동체 구성의 현실적 한계
- B. 공동체주의의 규범적 방법론적 난점: 공동체주의의 딜레마 봉착
- C. 공동체주의자들의 본색: 어쩔 수 없는 근대주의자와 자유주의자

58

A. 공동체 개념의 모호성과 공동체 구성의 현실적 한계 (1)

-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들이 꿈꾸는 공동체가 현대 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진' 것이고 근대 자유주의적 철학과 관행이 그러한 상실을 야기했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 공동체주의자들은 맥킨타이어와 샌델처럼 지방적(중간적, 혹은 탈중양화된) 공동체나, 테일러나 샌델처럼 공화주의적 공동체, 혹은 월처처럼 국가적 정치공동체를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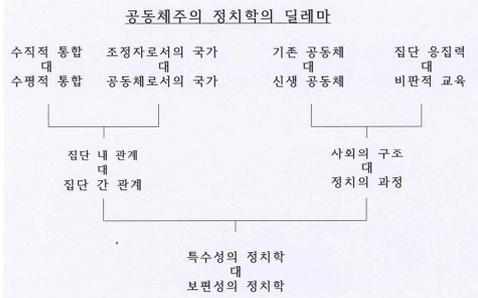
59

A. 공동체 개념의 모호성과 공동체 구성의 현실적 한계 (2)

- 어떠한 공동체주의자도 그러한 공동체가 현존하는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의 창출과 유지를 위한 조건과 방식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음.
- 공동체주의자들은 또한 그러한 지방 공동체가 국가에 대해서 갖는 관계 논의 없음. 또한 기존의 지방 공동체들 사이의 갈등과 기존 공동체와 신설 공동체 사이의 갈등 해소책 없음.

60

A. 공동체 개념의 모호성과 공동체 구성의 현실적 한계 (3)



61

A. 공동체 개념의 모호성과 공동체 구성의 현실적 한계 (4)

- 공동체주의의 딜레마를 심도 있게 논의한 샌더스는 여러 가지 하위적 딜레마를 형성하고 있는 총 5개의 일반적 딜레마를 말함.
- 지역적 공동체 대 비지역적 공동체, 법적 공동체 대 자연적 공동체, 사회적 관계의 포괄적 영역 대 선택적 영역, 명시적인 이론적 구조 대 묵시적인 이론적 구조, 서술적인 배경적 요소 대 상호작용적인 배경적 요소.

62

B. 공동체주의의 규범적 방법론적 난점: 공동체주의의 딜레마 봉착 (1)

- 자유주의자들의 공동체주의에 대한 역공 중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공동체주의의 독재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보수주의, 다수결 횡포의 함축성에 대한 규범적 비판임.
- 그것은 공동체주의가 '공동선의 정치'를 주장하므로 공동체주의는 그러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가능한 한 동질적인 사회를 추구, 완전주의적 가치 강요.

63

B. 공동체주의의 규범적 방법론적 난점: 공동체주의의 딜레마 봉착 (2)

-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가치론적 통합을 시도할 것이며, 사회적 갈등을 무시하고,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다원주의적 관용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우려.

64

B. 공동체주의의 규범적 방법론적 난점: 공동체주의의 딜레마 봉착 (3)

- 만약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만연이 공동체의 상실을 불러왔다면, 자유주의는 현대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반영일 것임.
- 모든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정치철학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문화와 관행은 상호보강 관계를 유지해왔음.

65

B. 공동체주의의 규범적 방법론적 난점: 공동체주의의 딜레마 봉착 (4)

- 그런데,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 재건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아의 구성적 결부와 함께 현대 사회의 이면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의 맥락을 주장.
- 그렇다면 자유주의는 자아와 현대 사회에 관한 정확한 이론적 반영은 아님. 이 경우 공동체 상실에 대한 자유주의의 문책은 불가능.

66

**B. 공동체주의의 규범적 방법론적
난점: 공동체주의의 딜레마 봉착 (5)**

- 테일러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사회의 심층 구조는 사실상 공동체주의적이라는 주장을 펴.
- 공동체주의의 이상과 같은 상이한 두 가지 주장의 집합들, 즉 공동체의 상실과 공동체의 압목적 존속, 그리고 현대사회에 관한 정확한 이론적 반영과 부정확한 이론적 반영으로서의 자유주의는 이율배반(antinomy).
- 공동체주의자들 모두는 이러한 역리에 빠짐. 오직 월저만이 이러한 문제 인지.

67

**B. 공동체주의의 규범적 방법론적
난점: 공동체주의의 딜레마 봉착 (6)**

- ‘단순 공동체주의자의 딜레마’
- 만약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현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분배적 관행과 제도에 의거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회적 의미는 보수적인 것으로 비판적 원칙으로 작동 불가. 만약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공동체의 현재 관행과 제도에 의거하지 않고 그러한 의미를 통해서 관행과 제도를 비판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가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공동체주의적 가치론에 의해서 인식 불가.

68

**B. 공동체주의의 규범적 방법론적
난점: 공동체주의의 딜레마 봉착 (7)**

- 월저와 맥킨타이어의 경우 가치의 사회적 의미와 전통에 대한 상충된 해석들이 존재할 경우, 이데올로기적 허위의식을 배제하고 진정한 해석만을 추려내서 평가하는 기준은 ‘해석학적 악순환’(vicious hermeneutical circle)을 피할 수 없음. 다양한 해석들은 오직 총체적인 해석들 안에서만 의미를 갖고 평가됨. 그러한 총체적인 해석들은 다시 다양한 해석들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됨.

69

C. 공동체주의자들의 본색: 어쩔 수 없는 근대주의자와 자유주의자 (1)

- 개인 영역에서 공동체주의는 하나의 안식처이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억압의 기제로서 전체주의적 공포를 암묵적으로 가져옴. 융(Jung)식의 집단 무의식적 트라우마. 파시즘과 공산주의 경험.
- 강성 공동체주의자 에치오니와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자인 갠스톤의 주도하에 공포된 <감응적 공동체주의 강령(The Responsive Communitarian Platform)>(1991)에 주요한 철학적 공동체주의자들인 맥킨타이어, 테일러, 월저, 샌델 서명 안 함.

70

C. 공동체주의자들의 본색: 어쩔 수 없는 근대주의자와 자유주의자 (2)

-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말한다: “소문과는 반대로, 나는 결코 공동체주의자가 아니고 또 공동체주의자인 적도 없다. 나는 또한 근대 사회를 공동체주의적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러한 맥킨타이어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본다면, 맥킨타이어는 어쩔 수 없이 가치다원주의적 자유주의자나 근대주의자(a modernist malgré lui).

71

C. 공동체주의자들의 본색: 어쩔 수 없는 근대주의자와 자유주의자 (3)

- 샌델은 롤즈의 무연고적 자아관과 상호연대를 요구하는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최대한 하라’는 차등의 원칙과의 비일관성을 지적. 그러나 결코 자유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음.
- 샌델은 <민주주의의 불만>(1996)에서 공화주의적 공공철학을 주창. 그러나 샌델은 공화주의적 전통은 노예제, 여성의 참정권 배제, 유산계층에 유리한 선거권 제도,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등으로 비판 받음을 인정. 그러한 인정은 자유주의적 관점이 아닌 공화주의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가?

72

C. 공동체주의자들의 본색: 어쩔 수 없는 근대주의자와 자유주의자 (4)

- 테일러는 근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본래성의 윤리라는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 그것을 공동체주의적으로 보완하려는 제한적인 의도만을 가짐.
- 또한 테일러는 자신을 공동체주의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자아관이 존재론적으로 볼 때 '총체론적 집단주의'(holist collectivism)가 아니라 '총체론적 개인주의'(holist individualism)임을 밝힘.

73

C. 공동체주의자들의 본색: 어쩔 수 없는 근대주의자와 자유주의자 (5)

- 테일러는 물론 노직의 원자론적 개인주의(atomist individualism)를 거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테일러는 롤즈의 정의론, 특히 "사회적 연합체들의 연합으로서의 공동체"의 개념을 지지한다.
- 다만 테일러는 롤즈의 차등의 원칙을 보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식으로 보완하려고 시도하면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를 옹호.

74

C. 공동체주의자들의 본색: 어쩔 수 없는 근대주의자와 자유주의자 (6)

- 월저는 자유주의의 방법론적 기초인 개인주의, 도덕적 보편주의, 권리준거적 의무론, 가치 중립성을 거부, 그러나 자유주의의 전통적 이념인 자유와 평등이 사회적 가치들의 공유된 이해에 근거한 공동체주의 정의론을 통해서 진정으로 실현됨을 주장, 자유주의에 친화적.
- 그의 <Spheres of Justice> (1983)는 롤즈의 정의론에 비견할 만한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으로 널리 인정됨.

75

C. 공동체주의자들의 본색: 어쩔 수 없는 근대주의자와 자유주의자 (7)

- 월저는 "자유주의를 그것의 기본강령으로부터 급속하게 퇴각하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또한 자신의 공동체주의는 '전근대적인 혹은 반자유주의적 공동체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는' 반동적인 공동체주의는 아니며, '자유주의(혹은 사회민주주의) 정치 속에서 화합'될 수 있는 유형의 공동체주의라고 밝힘.
- 그리고 그는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재발적 교정'이지 전면적인 대체는 아니라고 지적.

76

IV. 결론: 논쟁의 자유주의적 종식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미래.

- 자유주의의 자화상은 통상적으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미화되어서 그려져 온 것이 사실임. 공동체주의자들의 최대 공헌은 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유주의에 대한 솔직한 자화상을 그리도록 도와준 것임.
-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 이후'(post-liberalism)의 철학일지언정, 결코 '자유주의 사후'(a postmortem-liberalism)의 철학일 수는 없음.

77

공동체주의의 공헌과 그 한계

-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 이후의 철학이라는 의미는 공동체주의가 민주주의적 관행이 확립된 자유주의 전통 속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또한 공동체의 가치가 어떤 교정이 필요할 정도로 하락하도록 용인하는 자유주의 문화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임. 공동체의 붕괴/신설은 역사적 과정.
- 그러한 교정은 자유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교정이 자유주의 문화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공동체를 들고 온다고 해서 '만병통치약'(nostrum) 아님.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부분적 교정으로 그 존재 이유.

78

논쟁의 결과 해석 (1)

- 첫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극도의 양극화 혹은 이원론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야 함.
- 즉 우리의 자기 정체성은 우리의 목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인생계획을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기 정체성은 공동체에 의해서 완전히 구성되며 따라서 사회적 목적에 의해서 제약됨; 정당성이 선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선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공동선이 정당성을 완전히 압도함.

79

논쟁의 결과 해석 (2)

- 정의는 모든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아니면 덕은 특수한 사회적 관행에 완전히 의존한다는 것이 이원론의 횡포.
- 둘째, 자유주의의 방법론적 정초가 근대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에 내재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
- 셋째, 공동체주의는 아직도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비판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동체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현실적 전략이 결여.

80

자유주의의 건재 (1)

- 우리는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의 논쟁>을 자유주의적 자아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개념, 자유주의의 중립성과 반완전주의,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현대 사회 문제라는 5가지의 쟁점으로 고찰.
-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다양한 방어적 대응과 자유주의에 대한 적극적 재해석과 재구성을 시도함과 아울러 공동체주의자들에게 다양한 역공 시도.

81

자유주의의 건재 (2)

- 자유주의자들은 대체로 자유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인정, 그러나 공동체주의적 대안은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응수.
-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개념과 공동체 구성의 현실적 방안에 관련된 신뢰할 만한 대안 제시 없었음.
- 공동체주의적 대안이 명료화된다고 해도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부적절한 낭만주의적 노스탤지어에 불과.
-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밝힌 것처럼 공동체주의는 근대 다원민주사회에서는 부적절한 포괄적인 도덕적 교설의 하나로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불가.

82

자유주의의 건재 (3)

-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가 규범적으로도 방법론적으로도 다양한 딜레마에 봉착 지적.
-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의 정치를 주장함으로써 전체주의, 보수주의, 혹은 다수결 횡포의 함축성을 지님.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에 의존하고 않고서는 이러한 함축성에서 벗어 날 수 없음.
- 방법론적으로 볼 때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관행과 가치와 전통에 도덕적 준거를 두고 있는 한, 건전한 사회비판을 수행할 수 없는 보수주의적이고도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함.

83

자유주의의 건재 (4)

- 이러한 방법론적 딜레마는 보다 정교한 철학적 방법론상의 딜레마인 '단순공동체주의자의 딜레마'와 '해석학적 악순환'으로 재구성.
- 자유주의 이론과 자유주의 사회의 관계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모순된 두 가지 비판과 주장, 즉 공동체의 상실과 원자적 개인과 공동체의 암묵적 존속과 자아 정체성의 구성적 결부, 그리고 현대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반영과 부정확한 이론적 반영으로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시에 옳을 수 없는 이율배반.

84

자유주의의 건재 (5)

- 우리는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자유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도 제시.
-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대응과 그들의 자유주의의 적극적 재구성 노력과 아울러 공동체주의에 대한 역공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의 도전을 물리칠 만한 이론적 현실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 건재하다고 결론.

85

자유주의의 미래 (1)

- 자유주의 철학의 역사는 끊임 없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 자유주의는 자기의 영원한 동지를 철저히 간수하면서도 일시적 적들과 동침하여 동지로 포용하는 이론적 실천적 역동성을 입증.
- 자유주의는 합리주의, 경험주의, 합리적 선택, 혁명, 관료제도, 계몽주의, 낭만주의, 자본주의, 국가주의,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자신의 동지로 가져왔다. 공동체주의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동지였으며 이제 곧 한줌도 안 되는 최후의 저항자들을 물리치고 동지로 포섭할 것임.

86

자유주의의 미래 (2)

- 자유주의의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험난한 오디세이의 여정'은 지금도 끝나지 않음.
- 자유주의의 미래는 보장된 합의와 경직된 이데올로그들로 인한 '역사의 종언'이 가져올 '우울과 권태'가 아니라 인류의 번영을 위한 심각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지적 탐구와 사회적 실험으로 계속될 것임.

87